

2020 국별 진출전략

과테말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중도보수 신청부 취임	4
나. 한-중미 FTA 발효	5
다. 미국의 중미 반미민정책 강화	6
라. CICIG 이후 반부패 정책을 위한 기구 수립 논의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가. 정치 환경	8
나. 경제 환경	9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2
2. 시장 분석	1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3
나. 교역	15
다. 투자진출	18
라. 프로젝트	20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2
가. 교역	22
나. 투자	24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6
III. 진출전략	28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8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9
3. 한-과테말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4
4. 진출 시 유의사항	38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9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1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2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3
부 록	
對과테말라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4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현상유지) 2020년에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과테말라 FDI 유입, 수출 증대, 해외 가족 송금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 특히 해외 가족 송금은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는 등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임(GDP 3.0%, 인플레이션 3.2%)
- 2019년 8월 대선을 통해 자아마테이 후보가 당선되었고, 2020년 1월 취임예정. 다른 대선에 비해 정권이양 기간이 길어 2019년 들어 각종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신정부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분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에서는 과테말라시티 경전철, 과테말라 지하철, 북동부 간선도로, 에스쿠인틀라-케찰항구 고속도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미-중 무역전쟁, 미국 고용지표, 반이민정책 향방에 따라 경제 성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분명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15.9	16.3	16.6	16.9	17.2	17.6	17.9
명목 GDP	십억 달러	58.7	63.8	68.7	75.6	78.8	81.0	86.1
1인당 명목GDP	달러	3,688	3,924	4,141	4,471	4,567	4,606	4,808
실질성장률	%	4.17	4.14	3.09	2.76	3.15	3.06	3.40
실업률 ^(주1)	%	2.72	2.51	2.83	2.68	2.73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3.42	2.39	4.45	4.42	3.75	4.28	3.20
재정수지(GDP대비)	%	-4.79	-3.59	-3.16	-3.47	-3.28	-3.07	-2.97
총수출	백만 달러	10,992	10,824	10,581	11,100	11,079	11,234	11,993
(對韓 수출)	"	152	114	123	99	69	N/A	N/A
총수입	"	17,056	16,381	15,767	17,110	18,366	18,922	20,183
(對韓 수입)	"	440	434	321	306	291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 6,064	- 5,557	- 5,186	- 6,010	- 7,287	- 7,688	-8,190
경상수지	"	-1,231	-128	1,023	1,189	250	-258	-652
환율(연평균)	현지국/US\$	7.73	7.65	7.60	7.35	7.52	7.69	7.70
외국인직접투자 ^(주2)	백만 달러	1,389	1,221	1,185	1,170	1,032	N/A	N/A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7.1	7.5	8.9	11.5	12.3	14.2	14.8

자료 : 주1 : World Bank, 주2 : 과테말라중앙은행, 주3 : 과테말라통계청

기타자료 : iHS Markit(2019년 9월)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도보수 성향의 신임대통령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취임 예정
- ▶ 한-중미 FTA 발효 이후 과테말라 추가가입 협상 가능성 상존
- ▶ 미국의 대(對)중미 원조 중단, 중미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안전한 제3국 협정 체결 등 반이민 정책 강화
- ▶ CICIG 활동 종료 이후, 과테말라의 반부패 정책의 향방

가. 중도보수 신정부 취임

2020년 1월 14일 신임대통령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취임 예정

- 2019년 8월 11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VAMOS당(중도 보수)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57.95%)가 UNE당(중도 진보)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 42.05%)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
 -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남, 64세)는 외과의 출신으로 과테말라시 대중교통국장, 상수도 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네 번째 대선출마 만에 대통령 당선(2007년, 2011년, 2015년)
 - 2019년 6월 1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토레스 후보가 25.73%, 지아마테이 후보가 13.89%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히게 됨. 토레스는 후보는 지방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본인 및 UNE당의 부패 연루 혐의, 선거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고정 반대층 역시 두터웠던 점이 결선 투표의 패인으로 분석

신정부 주요 공약 및 현안 사항

- 지아마테이 당선자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통해 주요 분야 공약을 발표
 - 경제 : 수출, 중소기업 강화와 관광 진흥 도모,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Pronacom) 역량 강화
 - 사회 : 건강보험, 개별근로자의 IGSS(사회보장보험) 가입, 주택 보조
 - 치안 : 경찰 및 군 대처 능력 강화, 육해공 통신장비 및 무기 현대화
- 국내외의 과테말라 전문가들은 신정부에서 ‘안전한 3국’과 같은 미국과의 이민자 문제 해결, 일자리 확보 및 치안 강화 등을 통한 이민자 유출 대응, 법치 국가 확립 및 비리척결 등을 주요 현안 사항으로 꼽고 있음

나. 한-중미 FTA 발효

한-중미 FTA 발효(2019년 10월 1일)

- 2019년 8월 2일 한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가입이 비준되면서 2019년 10월 1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 발효,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중미권역과 FTA를 체결

*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는 국회 비준은 완료하였으며,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기다리고 있음

FTA 기대 효과

- 한-중미 FTA 발효 이후 향후 10년간 실질 GDP 0.02% 증대, 소비자 후생 6.9억 달러 개선, 2,534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됨.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 이후 15년 누적 5.8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700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예상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
 - 중미 각국 모두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
 - 특히 관세 인하 품목에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포함되어 다방면에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 중미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커피 및 원당은 즉시 철폐, 바나나(5년), 파인애플 및 망고(7년) 등은 점진적 철폐 예정으로 한-중미 양국기업 모두 FTA 활용에 큰 기대를 품고 있음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가입 협상 전망

-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 당시 15개 관세조항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며, FTA 협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향후 한-중미 FTA가 전체 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추가 참여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파나마의 경우 신청부 수립 이후 국회 비준 절차가 시작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과테말라의 추가 가입 추진은 신청부 수립 이후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중미(6개국) FTA 추진 경과

- 한-SICA 정상회담 시 한-중미 FTA 의제 논의(2010년 6월)
- 한-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2010년 10월~2011년 5월)
-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2015년 6월 VIP 방미 시)
- 한-중미 FTA 협상 진행(2015년 9월~2016년 10월, 총 9차례)
- 한-중미6개국, FTA 협상 실질 타결 발표(2016년 11월)
- 한-중미5개국(과테말라 불참) 간 가서명 완료(2017년 3월 10일)
- 한-중미 FTA 정식서명(2018년 2월 21일)
- 한-중미 FTA 한국 국회 비준(2019년 8월 2일)
- 한-중미 FTA 발효 : 온두라스, 니카라과(2019년 10월 1일)

다. 미국의 중미 반이민정책 강화

미국, 중미 3국에 대한 원조 중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국무부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 대한 원조 중단을 발표하고, 각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
- 미국은 빈곤율이 높은 중미 북부삼각지대의 안정과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사회환경 개선, 직업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했으나 이들 3국이 이주민 캐러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의 안전한 제3국 협정 제안

- 미국은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중미 3개국 및 멕시코와 ‘안전한 제3국’ 협정을 논의하고 있음. 이는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 과테말라 등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이민자를 줄이자는 취지임
- 과테말라는 2019년 7월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에 서명. 이에 따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미국 대신 첫 경유지인 과테말라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됨.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동 협약 체결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협정을 파기했다며, 대미(對美) 수출관세 부과, 외화 송금 수수료 부과, 과테말라 국민의 미국 여행 금지 등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과테말라는 협정에 서명하게 됨
- 미국이 수출관세 및 외화 송금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과테말라 제조업협회는 약 20만 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연간 약 30억 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

라. CICIG 이후 반부패 정책을 위한 기구 수립 논의

CICIG 주재 기간 종료

- UN 산하 기구인 과테말라 반면책특위(CICIG)는 과테말라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부정부패 사건에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이들이 면책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들을 수사하고자 설립되었음. CICIG은 국가 권력 기관 내에 뿌리내리고 있던 부정부패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임
- CICIG은 과테말라에서 검찰이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가려내고, 형사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2008년부터 120여 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수사하며, 과테말라의 조직범죄가 정부 기관에까지 침투해 있음을 밝히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관련 수사는 물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해 과테말라 국민의 72%에게 지지를 받음

* CICIG의 가장 대표적인 수사 건은 La Linea라고 하는 전직 오토 페레스 대통령과 록사나 발데티 부통령의 세관 부패 연루 사건으로 페레스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짐

- 다만,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9년 9월 종료 예정이었던 CICIG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CICIG을 폐지 수순을 밟음
 - 과거 주요 조사대상이 되었던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CICIG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미국과 UN의 반대로 유지해옴. 하지만 CICIG이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의 불법 선거 자금 연루 혐의로 면책특권을 박탈하자 CICIG과 갈등이 표면화 되었고, 결국 CICIG과의 협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지아마테이,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발표

- 지아마테이 당선자는 CICIG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부패 방지 위원회 신설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약 7,500만 케찰(천만 달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해당 예산은 각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에 요청한다는 입장임
 - 과테말라에서는 건설, 공공행정, 광업 분야에서 특히 많은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남미 평균보다 약 4%의 뇌물 비용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도시의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밀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신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한 경제를 만들고,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투자를 증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됨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중도우파 성향의 과테말라 신정부 수립 및 최대 야당 UNE의 향방 불분명
- ▶ (경제) 투자 및 수출 호조에 따른 3% 성장 예상.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對)중미 정책 변화에 영향 받을 가능성 상존
- ▶ (산업) 수출 및 투자 진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확대
- ▶ (정책) 중미 경제 통합을 위한 무역 원활화 정책 추진

가. 정치 환경

지아마테이 신정부 취임

- 지아마테이 당선자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건전한 투자유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빈곤 감축을 통해 과테말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
- 과테말라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이자 약 120만 명의 이민자들이 거주 중인 미국과는 안전한 제3국 협정, 원조중단 등의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
 - 미국 이민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18년의 경우, 93억 달러가 송금되었으며, 2019년에는 10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의 이민자 정책이 점차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자 다수의 이민자들이 해외 추방 혹은 송금액 수수료 부과를 우려해 조기 송금을 선호하기 시작함
- * 2018년 송금액은 과테말라 GDP의 11%에 해당
- 당선자는 미국과의 관계, 역내 경제통합 등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인접 국가를 방문하며, 이민자 문제, 마약 수송 문제, 인신매매, 무역 교류, 빈곤 퇴치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와는 국경 지역 주민들의 비자 문제, 경제 발전 문제 등을 논의 중임

여소야대 정국 전환 기대

- 2019년 6월 1차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UNE당이 54석, VAMOS당이 16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국면이 되었으나 대선 이후, UNE당 대표인 산드라 토레스가 2015년 대선

선거자금 미신고로 체포되고 검찰이 당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서 2020년 취임 이후의 국회상황은 불확실해짐

- 과테말라에는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며, 특정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UNE당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거나 여당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생김. 이에 따라 당선자의 정책 운영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음

나. 경제 환경

경제일반

- 투자 및 수출 호조에 따라 2020년에도 GDP 3.0% 성장이 예상되며, 과테말라는 2017년을 제외 하고는 2013년부터 3%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과테말라 경제는 미국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 증대, 안정적 물가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활발 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로 건설 붐으로 인한 투자 증대, 2018년 감소했던 수출의 회복세, 정부의 재정 확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다만, 미국의 중미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과테말라 경제에 끼치게 될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임
- (민간소비) 과테말라 국민의 약 40%가 해외 거주 중인 가족들에게 송금을 받고 있어 이민자의 본국 송금 증대에 따른 안정적 외화 유입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2020년 인플레이션은 3.2% 선으로 예상
- (정부 소비) 정부는 2020 예산안을 약 121억 달러로 책정하고, 국회에 상정함
 - 교육부, 보건부, 내무부, 통신교통부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이들 4개 부처 예산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 493개 상수도 프로젝트 및 환경 정화시설, 초등학교 신설, 병원 신축 및 증축 등의 사업이 주요 프로젝트로 꼽힘. 또한 3.4억 달러를 공공부문 투자에 배정 2019년 미진했던 각종 투자를 증진하고자 함

교역 동향

- 과테말라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7년 들어 다시 8%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2018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원당, 커피 등)의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경우 꾸준히 증가
 -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커피, 바나나, 카르다몸 등)과 의복류이나 최근에는 농산물 수출이 점차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등 인근 국으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수입품목은 에너지(석유·석탄·가스), 자동차 및 운송수단 및 플라스틱·봉제 관련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봉제 부자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수입 역시 인근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o 최근 과테말라 서부 지역에서 시판되는 일상 소비재 중 70%, 과테말라 시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30%가 밀수품일 정도로 밀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매년 170억 케찰에 이르는 세수를 잃고 있다고 알려짐. (이는 국가 총예산의 20%, 현재 SAT이 거둬들이는 세금의 60%에 해당) 특히 쌀, 옥수수, 밀가루 등 기본 곡물류와 세율이 높은 담배와 주류가 주요 밀수 품목임

투자진출 동향

- o 2018년 과테말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0.3억 달러로 해마다 투자액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해 섬유 분야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과테말라 봉제 의류의 주 소비처인 미국 소비자의 취향 변화(면사보다 화섬으로 제작되는 기능성 의류 선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오더 감소에 기인
- o 특히 신청부에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특히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품 생산 및 이동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 물가 안정,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다만, 빠른 시간 내에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과테말라 투자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
- * 과테말라 대법원은 2017년 산라파엘 광산이 현지 원주민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지시킨. 이에 대해 광산 측이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의를 마칠 경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부처를 통한 협의 진행이 미진해 운영 재개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

다. 산업 환경

산업 동향 일반

- o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업(26%), 제조업(18%), 민간서비스업(13%), 농축산업(10%), 공공행정 및 국방(7%)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섬유 분야는 국내총생산에서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서는 실질적인 의류 생산은 2.5%를 차지하며, 나머지 6.4%는 공급 업체 및 벤더 등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2019년 주거 및 상업 시설 건축 허가가 다수 인가되었다는 점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 예상에 따라 2019년 건설 분야는 4.9%에 달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물류통신업은 중미 지역 내 교역량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창고임대업은 최근 4년간 연간 7%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유망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과테말라 분야별 산업 현황

분야	2018년 총생산 (백만 케찰)	분야별 비중(%)	2018년 성장률(%)	2019년 성장률(%)
도소매업	152,581	25.9	4.4	3.7
제조업	105,319	17.9	3.4	3.1
민간서비스업	74,262	12.6	3.4	3.6
농수축산업	58,860	10.0	2.5	2.9
공공 행정 및 국방	43,580	7.4	2.5	2.8
물류통산업	41,182	7.0	4.7	3.7
부동산임대	39,764	6.7	3.1	3.1
건설	22,143	3.8	3.7	4.9
금융 및 보험업	19,508	3.3	4.4	5.5
전기 및 수도	13,244	2.2	6.4	4.4
광업	4,200	0.7	-38.2	1.6

* 자료 : 과테말라 중앙은행(2018년 추정, 2019년 예상 수치)

* 2019년 10월 18일 기준 환율: 1달러당 7.77케찰

산업 생산 및 수출 진흥 정책

- 과테말라는 산업 수출을 촉진하고자 자유지대를 설립하고, 산업생산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과테말라 정부는 과거 마킬라법 및 자유지대법을 통해 수출 혹은 재수출을 위해 제품을 생산 및 거래하거나 국제무역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법인들에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운영
 - 과테말라는 2016년 WTO와의 협정에 따라 기존의 마킬라법 및 자유지대법을 대체하는 긴급 고용보호법(19-2016법)을 발표. 새로운 법령하에서는 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의 면세 또는 유예 대상을 섬유유류산업 및 콜 센터로 한정했으며(기존에는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 제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지 않게 됨
 - 또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부담금 납부 및 노동법 준수 의무 부과 등을 강조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함. 특히 경제부, 국세청, 노동부, 사회보장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혜택이 박탈되게 됨
 - 2018년 10월 기준, 과테말라에는 총 186개의 회사가 12개의 자유지대에 입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테말라 전체 수출의 7%를 차지
- 한편 과테말라에서는 자유지대(Zolic)도 존재하는데 자유무역지대와 마찬가지로 관세 및 부가세 유예 혜택이 주어짐. 다만, 과테말라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며, 수출뿐 아니라 과테말라에서의 소비를 위한 제품 생산도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며, 생산, 제조, 포장, 보관, 유통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현재는 산토 토마스 항구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과테말라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유경제지역 이사회에서는 특별공공경제개발구역(ZDEEP)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관심 기업은 2019년 2월부터 입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입주 기업들은 10년간 100% 소득세 면제, 재수출 혹은 과테말라 수입을 결정할 때까지 수입 관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됨

라. 정책·규제 환경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정책

- 2032 장기국가발전계획(K'atun, Nuestra Guatemala 2032)
 -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개발과 관련된 전분야의 개발계획과 전략을 집대성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서이며, 대통령 직속 기획청(SEGEPAN)이 총괄
 - 지방 균형발전, 서민복지증진, 국가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개발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프로젝트, 투자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다수의 국가정책 및 시행계획이 여기서 파생

중미 경제통합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 시행

- 중미 6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SICA 창설 이래 SIECA를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역내 생산재화에 대해서는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대 수준이며, 앞으로는 관세동맹을 거쳐 통합 경제를 구축하고자 함
 - 2019년 5월 7일부터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기존 수기로 각 국가 별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3종의 세관 수출신고서를 DUCA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각 국가의 세관 분야 시스템을 SIECA에서 개발한 DUCA 플랫폼에 연결하는 식으로 시스템 운영
 -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경우, 관세동맹을 맺고, DUCA보다 진전된, 국내세금-부가세(나라에 따라서는 판매세) 납부 기능이 포함된 FyDUCA를 사용하고 있음. 현재 엘살바도르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앞으로 가입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양자/다자협정 체결

- 시장개방, 수출 및 투자 진흥에 방점을 둔 친 FTA 입장 견지하고 있으며, FTA뿐 아니라 관세 동맹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방을 시도하고 있음
 - FTA 및 관세협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만 결렬된 한-중미 FTA는 반대 업계 의견 수렴 후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

- ▶ 중미 최대 시장이자 중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미국, 멕시코, 중미 등 인근국 교역이 많고, 역외국 중에는 중국, 한국이 최다국
- ▶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 추세로 2018년 10억 달러 기록(미국 23.8%, 멕시코 17.7%, 콜롬비아 12.9% 순, 한국 3.2%)
- ▶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전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중미 시장 진출 교두보이자 중미 6개국 중 최대 소비 시장

- 과테말라는 중미 전체 GDP의 30%, 수입의 27%를 차지하며, 특히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 관문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한-중미 FTA가 2019년 10월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 발효, 향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 파나마 국회 비준 등을 거쳐 5개국에서 FTA가 모두 발효된 이후, 과테말라 추가 편입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과테말라는 평균 관세율 2.7%로 높은 무역개방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3국 관세동맹 공식 발효로, 중미 시장 통합의 선도 역할 수행
 - 실질적 세관전산망 통합(FyDUCA온라인 통일양식 도입),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면서 중미 역내 인구의 68%, GDP의 48%를 차지하는 공동 시장 탄생
 - * 중미 공동시장회원국(파나마제외 5개국) 간에는 역내 원산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 교역 시행 중

신정부의 강한 무역진흥의지 및 신산업 성장세

- 치안불안, 불안정한 기업 환경 등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으나 신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 수출 진흥의지로 향후 기업 환경 개선이 기대
- 과거 마킬라를 중심으로 한 섬유 산업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 최근에는 콜센터를 필두로 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이 급성장 중이며, 36,500여명의 직접고용과 약 10만 명의 간접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중미 시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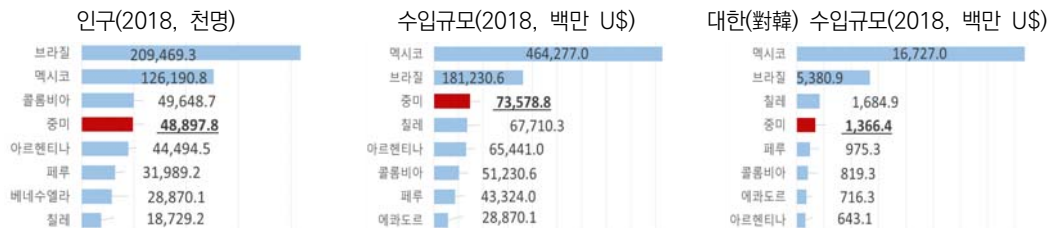
□ (개요) 과테말라(북단)부터 파나마(남단)까지의 중미 6개국을 의미

- 상호유사성으로 경제·정치적 통합 논의가 반복되어 왔음
- 중미기구(ODECA, 1951년), 중미공동시장(MCCA, 1960년)에 이어 현재의 중미통합체제(SICA, 1993년) 창설
 - * 대(對)스페인독립(1821년), 중미연방(1823~1838년)을 거쳐 현재제 정착

□ (경제규모) 인구·GDP·수입규모 기준 중남미 4대 유망 시장

- (GDP) 중미(\$2.6천억)는 콜롬비아(\$3.3천억), 칠레(2.9천억), 페루(2.2천억) 등 중남미 FTA 既체결국과 유사
 - * GDP기준 방글라데시(2.5천억 불), 베트남(2.2천억) 등 아시아 주요 개도국 상회
- **과테말라·파나마·코스타리카** 3개국이 **총 GDP의 76%, 전체수입의 61.3%, 대한(對韓) 수입의 66.0%** 차지
 - * 대한(對韓) 수입규모 : (1위) 파나마 3.7억 U\$, (2위) 과테말라 2.9억 U\$, (3위) 코스타리카 2.5억 U\$

〈중남미 주요국 간 경제규모 비교〉



* 자료 : Worldbank, World Trade Atlas(2019년 8월 기준 최신자료)

□ (시장통합) 민간을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시장 단일화 흐름 관찰

- 지역통합 기류에 따라 자본 및 사업 모델의 역내 다국적화 관찰
 - 역내 전통 부호(주로 엘·파)는 유통망의 다국적화를 주도하고, 제조 자본은 국경을 넘나드는 GVC 구축
- 중남미 지역공동체·공동 시장 중 중미 시장의 역내교역 가장 활발
 - 역내교역이 1,132억 불로 전체교역량의 18%(出26%/入13%) 차지(2018년)
 - * MERCOSUR 12%(11%/13%), COMUNIDAD ANDINA 8.7%(8.4%/9.0%), 태평양동맹 3%(2.9%/3.1%)
- 현재 중미대외공동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5월부터는 전산화된 단일통관시스템(DUCA)을 도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고자 함(역외수입품 또한 최초 관세 납부 후 협정국 간 무관세 통관 가능)

□ (산업구조) 경제·산업적 특성 고려 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양분

- 북부는 **수출·임가공 관련 제조업**, 남부는 **서비스·물류·관광업** 발달
 - 북부는 **美중속형** 경제구조(임가공수출·해외송금 高 의존)로 美경기에 따른 부침 多

중미 권역별 시장 특성 비교

권역	특징
북부	○ (해당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 (주력산업) 봉제업(과·엘), 하네스(온), 플라스틱 제조 등 ○ (경제구조) 수출임가공업 발달, 높은 미국 의존도 ○ (기타) 낮은 소득수준(1인 GDP 2~4천 U\$), 저임금 노동력 풍부 
남부	○ (해당국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 (주력산업) 서비스, 물류, 관광업 등 ○ (경제구조) 바이오·IT첨단산업(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파) 진출 활발/제조업 미비·개방경제 지향 ○ (기타) 상대적 고소득 지역(1인 GDP 1만 U\$ 이상) 

나. 교역

수출입 동향 일반

- 과테말라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7년 들어 다시 8%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2018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원당, 커피 등)의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경우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수출입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 출(백만U\$)	10,993	10,769	5,666	1.76
수 입(백만U\$)	18,388	19,699	9,694	0.95
교역수지(백만U\$)	-7,395	-8,930	-4,028	-0.17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년 9월 확인)

- 2018년 기준, 국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38%), 중국(10.95%), 멕시코(10.83%) 등 3개국 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도 14% 차지
 - 중국은 2017년부터 멕시코를 제치고, 과테말라의 제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 인접한 FTA 체결국(미국, 멕시코 등), 중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역내국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제조 강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편이나, 대한(對韓) 수입은 근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입규모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입액(백만U\$)			비중(%)			증감률 (19/18, %)
		2017	2018	2019.6	2017	2018	2019.5	
1	미국	6,998	7,466	3,619	38.06	37.90	37.35	-2.82
2	중국	2,333	2,157	1,157	12.69	10.95	12.18	15.89
3	멕시코	1,968	2,134	1,065	10.70	10.83	11.01	4.24
4	엘살바도르	875	1,025	476	4.76	5.20	4.77	-4.93
5	코스타리카	567	658	308	3.08	3.34	3.07	-3.38
6	콜롬비아	393	528	266	2.14	2.68	2.66	11.00
7	파나마	393	587	260	2.14	2.98	2.57	-2.38
8	온두라스	330	414	216	1.79	2.10	2.20	5.96
9	인도	309	316	159	1.68	1.61	1.71	5.35
10	일본	361	265	156	1.96	1.34	1.62	7.46
13	대한민국	306	291	134	1.67	1.48	1.46	-9.11
총계		18,388	19,699	9,694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 한편 수입대상국별로 품목이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화석 연료 수입에 약 30%가 집중되어 있으며, 휴대전화·자동차 등이 그 뒤를 차지함. 중국에서는 철강을 비롯한 다양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의 수입은 전기·의약품·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 편임

2018년 과테말라의 3대 주요 수입국별 5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미 국		중 국		멕시코	
	품목(HS코드)	금액	품목(HS코드)	금액	품목(HS코드)	금액
1	석유(2710)	2,251	철강(7208)	84	전기(2716)	82
2	휴대전화(8517)	331	오토바이(8711)	80	모니터(8528)	58
3	승용차(8703)	312	타이어(4011)	70	맥주(2203)	68
4	천연가스(2711)	236	휴대전화(8517)	69	의약품(3004)	55
5	판지(4804)	232	편물(6006)	60	절연케이블(8544)	53
-	계	7,465	계	2,157	계	2,133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년 9월)

- 한편 중점 교역국 중 역내 중미국은 경공업품, 식료품 등에 집중. 과거에는 의류(봉제) 관련 원부자재가 많았으나 과테말라의 봉제 산업이 과거보다 위축되며, 이는 감소하는 모습

2018년 과테말라의 중미 지역(5개국) 5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플라스틱 제품 (3923)	68	가공식품 (2106)	92	의약품 (3004)	214	천연가스 (2711)	98	쇠고기 (0201)	22
2	화장지 (4818)	53	소스 (2103)	37	신발류 (6404)	21	비누 (3401)	42	유제품 (0402)	21
3	의약품 (3004)	46	화장지 (4818)	33	혈액 (3002)	21	평판압연강판 (7210)	18	소냉동육 (0202)	15
4	빵 (1905)	45	면웨이스트 (5205)	30	자동처리기계 (8471)	18	빵 (1905)	15	설탕 (2202)	9
5	음료 (2202)	44	빵 (1905)	27	신발류(고무) 6402	15	철스크랩 (7204)	11	철스크랩 (7204)	7
-	계	1,025	계	658	계	587	계	414	계	159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년 9월)

- 과테말라 수출국은 DR-CAFTA에 힘입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5.7%), 이어 중미 역내 시장(31.5%), 멕시코(4.7%) 등 인근 시장에 집중
- 반면, 한국(0.64%)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출규모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U\$)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6	2017	2018	2019.6	
1	미 국	3,716	3,847	1,916	33.80	35.72	33.82	-3.6
2	엘살바도르	1,217	1,335	664	11.07	12.40	11.71	2.5
3	온두라스	967	847	481	8.80	7.87	8.50	17.3
4	니카라과	562	541	259	5.11	5.02	4.58	-8.2
5	멕시코	510	507	217	4.64	4.71	3.83	-12.4
6	코스타리카	423	429	209	3.85	3.99	3.68	-0.8
7	네덜란드	361	357	153	3.28	3.32	2.70	-4.2
8	캐나다	228	164	119	2.08	1.52	2.09	18.6
9	파나마	288	243	116	1.90	2.12	2.04	-1.9
10	이탈리아	155	148	108	1.41	1.37	1.91	29.3
29	대한민국	99	69	24	0.90	0.64	0.42	-49.6
총계		10,993	10,769	4,348				1.8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품목별 수출입 현황

-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공산품 및 현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에 집중
 - 연료(석유·가스·석탄), 자동차(승용차·화물차), 휴대폰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식품류, 의약품, 봉제·플라스틱 등과 같은 현지에 발달한 경공업용 원부자재 등이 수입 상위품목을 차지
 - 자동차의 경우, 신차보다는 중고차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봉제 원부자재의 경우, 과테말라 봉제 산업의 위축으로 점차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
 -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국제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수출품목은 농산물과 의복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5대 상위 품목 모두 농산물이 차지.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는 2018년 니카라과 정치 불안정 사태의 장기화로 과테말라로 오더 물량이 몰려 반사이익을 얻었으나 2019년에는 전년도 물량이 몰린 관계로 상대적으로 오더가 감소

2018 과테말라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 입			수 출		
	품목명(HS)	금 액	증감률	품목명(HS)	금 액	증감률
1	석유화학제품(2710)	2,474.3	15.2	바나나(0803)	895.7	2.35
2	휴대전화(8517)	627.0	0.02	커피(0901)	681.0	-9.03
3	승용차(8703)	567.5	-0.9	사탕수수당(1701)	633.2	-22.4
4	의약품(3004)	526.8	4.7	팜 유(1511)	447.8	0.1
5	화물차(8704)	370.7	5.0	육두구(0908)	433.8	18.3

6	천연가스(2711)	363.8	9.2	남성용셔츠(6105)	311.9	28.9
7	판 지(4804)	281.0	16.8	저지·폴오버(6110)	297.9	34.23
8	석탄(2701)	259.0	39.10	여성블라우스(6106)	288.0	-8.2
9	조제식품(2106)	244.1	14.68	의약품(3004)	208.9	-3.8
10	옥수수(1005)	235.5	10.16	여성니트(6204)	201.8	13.2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년 9월)

다. 투자진출

투자진출 동향

- 과테말라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음. 국별로는 2018년 연간 기준으로 미국(23.8%), 멕시코(17.7%), 콜롬비아(12.9%) 순으로 투자비중이 컸고,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2018년 3.2%)
- 과테말라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으로 2018년 기준 80만 달러, 비중으로는 전체 투자유치의 0.1%를 차지

최근 5년간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월	
	FDI	비중	FDI	비중	FDI	비중	FDI	비중	FDI	비중
콜롬비아	164	13.4	124	10.4	282	24.1	133	12.9	109	31.9
미국	385	31.5	349	29.5	175	14.9	246	23.8	44	12.8
멕시코	60	4.9	186	15.7	173	14.8	182	17.7	38	11.1
영국	36	2.9	27	2.3	27	2.3	-8	-0.8	30	8.9
기타	179	14.6	136	11.5	50	4.2	156	15.1	28	8.2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60	5.0	86	7.3	175	15.0	104	10.1	23	6.8
룩셈부르크	47	3.8	52	4.4	57	4.9	78	7.5	19	5.7
스페인	62	5.1	68	5.7	28	2.4	52	5.1	19	5.5
페루	-4	-0	-11	-1	-3	-0	34	3	12	4
대한민국	33	3	47	4	35	3	33	3	9	3
총계	1,221	100	1,185	100	1,170	100	1,032	100	340	100

* 자료 : 과테말라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 2019년 9월 기준 최신자료)

- 2018년 기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1.5%), 제조업(16.9%), 금융보험업(16.3%) 순으로 투자가 활발
- 전력 및 금융보험업의 경우, 멕시코, 콜롬비아계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의 지분 인수 등으로 시장에 대거 진출한 바 있음
- 특히 월마트의 경우 2019년 4,800만 달러를 추가 투자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9개의 신규 매장

설립 및 리모델링,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임

* 월마트는 과테말라의 가장 큰 슈퍼 체인으로 전국에 약 250개의 매장을 보유

- 한국기업들의 진출은 봉제 분야의 임가공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과테말라의 섬유(봉제) 분야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주요 바이어인 미국기업들의 오더가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따라 과테말라에서 다른 국가로 옮겨감에 따라 신규투자유입은 미미한 편임

2018년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연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투자금액	비율	구 분	투자금액	비율
도소매업	325.2	31.5	통신업	123.6	12.0
제조업	174.7	16.9	전 력	95.5	9.3
금융·보험업	168.2	16.3	농업·광업(광물·석유)	-2.1	-0.2
기 타	146.4	14.2	계	1,031.5	

* 자료 : 과테말라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 2019년 9월)



BPO 분야 투자 현황

- 과거에는 마킬라를 중심으로 한 섬유 산업에 많은 투자가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업 특히 콜센터를 필두로 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들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멕시코, 미국 등이나 스페인, 캐나다까지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Xerox Servicios Compartidos, 24/7 customer, Grupo Pronto BPO, Nearsol 등이 있음
 - 과테말라는 중미 지역에서는 비교적 첨단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 요건, 인구구성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과테말라의 BPO산업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아웃소싱 트렌드에 힘입어 앞으로 과테말라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36,500명가량의 직접 고용과 10만 명가량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 직접 고용인 중 27,000여명 정도는 영어/스페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인력



투자진출 장벽

- 각종 세제혜택 제도화,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패 만연, 관료주의, 보신주의 등의 폐 해로 다수의 투자기업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음
 -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 문제를 비롯하여 법이 명시한 부가세환급 지연, 비자발급 지연, 과도한 통관 지연 등 불합리한 사례가 수시 발생하여 기업인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

* 국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건설, 공공행정, 광업 분야에서의 부패가 심각한데 중남미 평균 보다 4%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함

- 특히 과테말라에서는 과거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사례와 같이 투자가 보장되지 않고, 법적 안정성 보장되지 않는 점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히고 있는데 과테말라 자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혹은 분쟁 해결을 담당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나 조정기관도 없는 상황임

* 과테말라전력위원회(CNEE)의 송전요금 인하결정으로 손실을 입은 Iberdrola사 (과테말라 송전사 EEGSA의 당시 최대 주주)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CSID)에 과테말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2012년 8월)

라.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과테말라의 정부 인프라 투자는 중남미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프라 부족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낮은 인프라 투자는 정부의 재정 부족 및 발주기관의 프로젝트 오너십, 추진 의지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과테말라는 2030년까지 전력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92.46%에 불과. 이는 최근 3년 동안 불과 0.5% 늘어난 수치임. 또한 전력보급은 알파베라파스(44.36%), 페텐(67%) 등 지방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전력 보급률을 99%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4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
 - 또한 인구의 약 53%만이 도시에 살고 있어 각종 인프라 혜택에서 소외된 인구가 많으며, 이들 인구는 마야 원주민인 경우가 많음
 -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중미경제통합개발은행(CABEI 47%), 미주개발은행(IDB 33%), 세계은행(World Bank 20%) 등 다자개발은행 자금을 주로 활용했으며, 민관협력사업(PPP)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청(이하 ANADIE)을 설립했으나 아직 완료된 프로젝트는 없음
- 다만, 2020년 1월 신정부 취임 이후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과테말라 경전철 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심 교통개선 프로젝트는 대통령 당선자인 지아마테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탄력을 받아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입진흥을 위한 자유지대 프로젝트, 수송철도 프로젝트 등도 논의 되고 있음



민관협력사업청 사업 현황

- 과테말라 민관협력사업청*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사업은 정부종합청사, 경전철 사업 등 총 7건으로, ANADIE에서는 경전철사업은 점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공항 현대화 사업도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는 입장

* 민관협력사업청(ANADIE) : 정부법령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민자 투입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총괄(DECRETO 16-2010, ACUERDO GUBERNATIVO NO. 360-2011)

민관협력사업청(ANADIE) 추진 주요 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발주처	규모 (억 불)	추진현황
Escuintla시-Quetzal항 고속도로	통신인프라주택부	0.8	낙찰 *국회승인 대기 중
북동간선도로		3.1	사전조사
과테말라 도심 경전철 (Metro Riel)	철도청	7.7	타당성조사 입찰
떼쿤우만 복합터미널	경제부	0.4	사전조사 *기존 철도 복구 작업 시작
La Aurora 국제공항 현대화	통신인프라주택부 민간항공국	1.2	사전조사
정부종합청사 건설	재무부	2.4	PQ 2년 전 PQ후 문화재 문제로 지연
과테말라시티 지하철	과테말라시티	미정	예비 타당성 조사 입찰 (입찰기한 2019.9.30)

* 자료 : 과테말라민관협력사업청(ANADIE, 2019년 9월 기준)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중미 FTA 발효(2019년 10월 1일)

- 2019년 8월 2일 한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가입이 비준되면서 2019년 10월 1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 FTA 발효
 - *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는 국회 비준은 완료하였으며,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기다리고 있음
-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 당시 15개 관세조항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며, FTA 협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향후 한-중미 FTA가 전체 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추가 참여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 파나마가 2019년 7월 신청부 수립 이후 국회비준을 비롯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과테말라의 재가입 협상은 실질적으로 지아마테이 신청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교역 동향

- 한-과테말라 교역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대한(對韓) 수입액은 2019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감소세(-9.11%)를 보이고 있으며, 대한(對韓) 수출액은 50%의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대한 수요 수입품목인 화물차 및 편직물, 원단, 색소 등 각종 원부자재의 수입 감소에 기인함

최근 4년간 한국-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한국 → 과테말라(천U\$, CIF)	321,270	306,199	291,198	134,539	-9.11
과테말라 → 한국(천U\$, FOB)	123,097	98,577	69,055	23,569	-49.64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년 8월)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수출품목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대체적으로 과테말라 상위 수입품목과 일치하며, 자동차, 봉제부자재 (면사·합성섬유·염료), 기계류 등 내구재와 산업재에 집중
 -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강세품목의 한국산 선호도는 꾸준하나, 중국·멕시코 등 경쟁국의 시장 점유율도 지속 증가
 - 반면, 멕시코 및 인근 중미국은 농산물, 식료품, 소비재 등 경공업 제품에 집중, 품목 다양성에 있어 한국이 우위

- 승용차의 경우, 매년 수입물량은 18~19만 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신차와 중고차 별로 주요 수입국가가 변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아시아 및 중남미에서 생산 공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임
 - 가장 최근 발표 자료 기준(2018년 3월) 신차 시장은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이 37%로 압도적이며, 마쓰다(9.93%), 혼다(7.48%), 닛산(6.99%), 미쓰비시(5.41%), 그리고 현대(3.9%)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밖에는 원부자재, 철강(형강, 평판압연 제품), 섬유기계류 등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재 중에는 음료(HS 2202) 수입액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모습임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수출품목(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HS)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상)	2017	2018	2019(상)	
1	승용차(8703)	47.5	34.3	15.1	15.52	11.78	11.26	-10.53
2	편직물(6006)	26.1	27.7	10.5	8.51	9.50	7.81	-31.8
3	화물차(8704)	16.0	18.0	8.4	5.24	6.19	6.27	3.07
4	승합차(8702)	12.7	13.5	8.2	4.15	4.64	6.12	16.43
5	합성유기착색제(3204)	8.5	2.7	6.6	2.79	4.38	4.88	22.1
6	음료수(2202)	5.7	5.7	3.7	1.86	1.97	2.74	57.34
7	축전지(8507)	4.4	6.7	3.7	1.43	2.32	2.74	5.87
8	봉제용기계(8451)	9.6	5.0	3.6	3.12	1.70	2.65	103.34
9	건설중장비(8429)	4.3	6.9	3.3	1.40	2.39	2.43	-12.46
10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강판(7225)	9.0	-	3.1	2.92	-	2.27	n/a
계		306.2	291.2	134.5				-9.11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년 9월)

과테말라의 대(對)한국 수출품목

- 매년 과테말라의 대(對)한국 수출은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커피, 바나나 등 농수산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축전지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등의 품목도 상위 수출 품목에 자리 잡고 있음
 - 커피는 한국에서 안티구아를 비롯한 과테말라 커피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 다만, 기타 품목들은 해마다 부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 2019년 6월 기준, 농산물과 스크랩 등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90% 차지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수입품목(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HS)	년도별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19/18, %)
		2017	2018	2019(상)	2017	2018	2019(상)	
1	커피(0901)	23.38	23.79	12.60	23.72	34.45	51.15	-12.03
2	바나나(0803)	10.53	10.06	4.40	10.68	14.57	18.68	-9.16
3	축전지스캐(8548)	4.53	7.45	3.00	4.6	10.78	12.71	-28.78
4	알루미늄스캐(7602)	4.63	2.71	1.19	4.69	3.93	5.05	-23.72
5	판지(4819)	1.01	1.20	0.70	1.03	1.74	2.99	31.12
6	남성용셔츠(6105)	0.29	0.59	0.51	0.3	0.86	2.18	107.65
7	구리스캐(7404)	0.12	0.48	0.44	0.12	0.69	1.85	2113.01
8	냉동채소(0710)	0.22	0.52	0.28	0.23	0.76	1.2	22.21
9	티셔츠(6109)	-	-	0.16			0.67	n/a
10	앞담배(2401)	-	0.12	0.12	0	0.17	0.51	0
계		98.58	69.05	45.4				-41.74

* 자료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년 9월)

나. 투자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투자 현황

- 과테말라는 브라질(5만), 아르헨티나(2만), 멕시코(1만), 파라과이(5천)에 이은 중남미 5대 교포 경제권이며, 진출한 봉제 업체 관계자들이 주류를 구성
 - 이에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 전자 정도만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임가공업과 관련된 봉제 및 수직 계열화된 중·소규모 협력기업들이 대부분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직·편직·직조, 무역 등 총 120여 개의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임
-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1989년 37건, 2000년 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복, 섬유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법인 수 84%, 투자금액 82%)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투자 현황(1980~2019년 누계)

(단위 : 천 달러)

업종	중분류	소분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 제품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56	146,731	87,905
		셔츠 및 블라우스	1		3,300
		여자용 겹옷	2	1	1
		편조의복	2	10,515	713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화학 섬유직물 직조업	10	36,083	15,037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	3,006	2,856

	편조원단 제조업	2	255	100
	날염 가공업	1	501	46
	기타 직물 제품	1	13	13
	기타 분류 안된 섬유 제품	0	1	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의약품 제외	3	1,590	1,306
	기타 제품	2	2,050	1,2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	372	346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	500	155
건설업		3	32,116	20,218
부동산업		1	1,200	1,051
숙박 및 음식점업		2	332	2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20	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301	0
총 합계		91	238,887	134,493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9년 9월)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투자진출 성공 사례 : ALCATEX

- 편직·봉제 생산라인을 갖춘 수출임가공 전문기업으로 현지에 자생한 한국계 기업
- 타 봉제 기업들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가운데, 공격적 영업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중견업체
- Textivision社(봉제), Nitopia社(편직), Startex社(무역) 등 3개사가 통합, 오더부터 제조, 공급까지 일괄 진행 가능
- 현재 라운드, 플로티셔츠 등을 주로 생산하며, Polo(Ralph Lauren) 브랜드를 주력으로, Guess, Adidas, Newera, Outerstuff 등 다수의 유명브랜드에 납품 중

※ ALCATEX 자회사 개요

- ① Nitopia社(편직) : 편직기 200대 보유, 종업원 200여 명 근무 중(매출 5백만 불/연)
- ② Textivision社(봉제) : 롱라인 4대 운영 중이며, 종업원 400여 명 근무 중(매출 3백만 불/연)
- ③ Startex社(무역) : 무역 자회사로 매출규모는 25백만 불/연(종업원수 100여 명)

시사점

- 과테말라 봉제업의 경우 임가공 투자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 꾸준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과거 80~90년대 전성기 대비 경쟁력을 이미 많이 상실한 상태
 - 특히 주력 구매처인 미국 바이어들의 오더도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변화에 따라 상당량이 합섬 제품을 제조 기반이 갖춰진 동남아 공급처로 전환되고 있어 전체적인 추가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봉제 분야의 투자가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기업이 관심을 보였던 제조업 외에 과테말라의 주요 투자유치업종인 도소매, 금융보험업 등은 제한적인 시장규모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야임

- 다만, 과테말라 신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각종 인프라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봉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조업 투자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신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

- 2019년은 현 정권 말기인 한편, 역대 최장의 정권이양기간을 갖게 되어 다수의 대외협력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바 있음. 2019년 8월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는 신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다양한 아젠다를 위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과는 개발협력, 경제, 인프라, 치안,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음
- 특히 신정부에서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혁신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 산업고도화, 인프라 분야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음

개발협력분야 확대

- 특히 개발협력분야에 있어 2019년 8월 “한-과테말라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앞으로 무상원조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한국은 1991년부터 과테말라에서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무상원조 사업을 활발히 실시해 왔으며, 현재 과학수사센터 건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중임
- 2018년에는 과테말라에서의 첫 유상원조 사례인 ‘과테말라 병원 인프라 개선’ 사업이 승인되기도 하였음. 이는 중미경제통합개발은행(CABEI)과의 협조융자 프로젝트로 한국의 CABEI 정회원국 가입이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승인되면서 향후 더욱 많은 협력 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인프라 분야 협력 필요

- 과테말라 인프라는 중남미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도로, 항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과제가 산적해 있음. 다만,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국제기구 차관, NGO 협업사업 등을 주로 추진
- 다만, 과테말라 국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관 사업을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어 다자개발은행 자금 투입 사업들도 국회통과가 안되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
- 신정부에서는 도심 교통개선을 위한 경전철, 지하철, 교역 증진을 위한 철도 사업, 격오지 통신망 및 전력망 구축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지식공유사업(KSP)를 비롯한 각종 해외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알리고, 다자개발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공을 검토해야 할 것

- 2019년 5월에는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한 바 있음. 동 세미나에는 전력광물부 인사뿐 아니라 발전 및 송배전 업체, 다자개발은행, EPC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과테말라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행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
- 또한 과테말라뿐 아니라 엘살바도르에서도 2019년 6월 신정부가 들어서며,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바 관련 기업들의 중미사절단 파견도 필요할 것임
- 특히 과테말라는 아직까지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미미한 상황으로 우리기업들의 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점임

참고 : CABI 태평양 중미통합철도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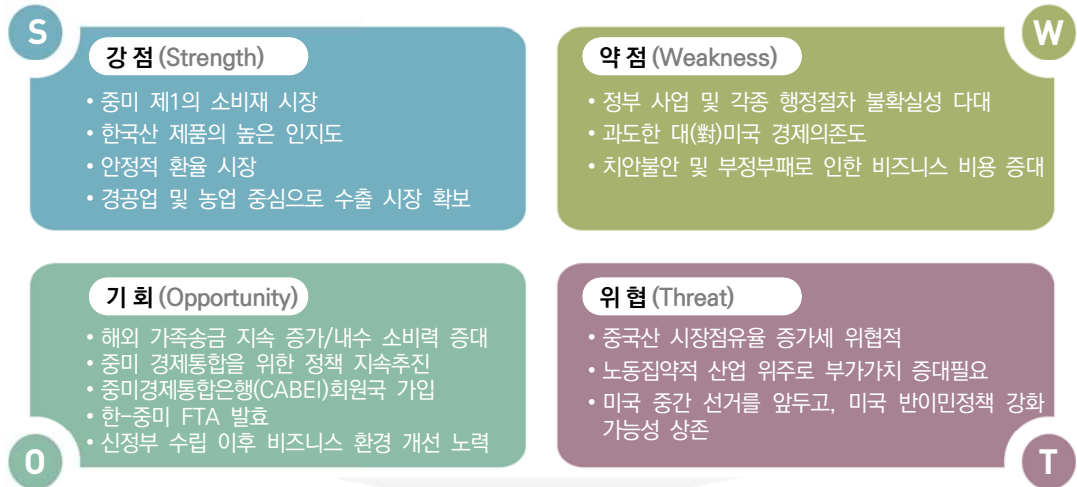
- ▶ **배경** : 중미경제통합은행(CABI)는 중미의 지역개발 및 통합과 관련된 정책 금융을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역내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미 통합 철도 논의를 시작함
 - 철도 구간은 현재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의 Tecun Uman에서 시작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연결하게 되며, 주요 항만과의 연결을 통해 철도, 항구, 공항, 육상운송을 모두 연계하는 인터모달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 과테말라 지아마테이 당선자와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철도 프로젝트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 **진행현황** : 2019년 9월부터 진단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프로젝트 범위를 확정할 예정
 - 과테말라는 현 철로 인프라를 개보수하여 사용 가능하며, 코스타리카는 일부 구간 철도 인프라 구축 후 운영 중
- ▶ **한국과의 협력가능 분야**
 - 철도학교 개최를 통한 관계 기관 및 직원 교육
 - 철도 운영에 대한 한국 경험 공유 및 컨설팅 : 운영 체제, 법규 및 규제, 관련 행정부서와의 조율(세관, 이민, 검역), 철도 사용자 교육 등
 - 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
 -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건설, 객차 등 기자재 조달, 운영 솔루션 제공 등)

Ⅲ. 진출전략

- ▶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통합 시장 관점에서의 마케팅 강화
 - 중미 지역 FTA 범업/홍보사업, 중미 지역 기구 협업사업 등
- ▶ 식품, 화장품 등의 한류 우수 소비재 수출 사업 추진
 - 대형유통망 입점, 팝업스토어, KSF 홍보사업 등
- ▶ CABI 정회원국 가입에 따른 MDB 차관 활용 사업 개발 및 과테말라 신청부 수립 후 프로젝트 수주 강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과테말라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FTA 수혜 품목, 우수상품 시장개척 • 식음료·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 진출 강화
ST 전략 (강점 활용)	• 중산층 新수요를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 스마트팜 및 농업 기자재 시장 개척 • 현지 정부 육성산업 협력 분야 투자진출 강화
WO 전략 (기회 포착)	• 중미 시장 전체 대상의 마케팅사업 추진 • SICA, CAB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용
WT 전략 (위험 대응)	• 개발협력 연계 맞춤형 G2G 사업 개발 • 전대금융, 개발협력 차관 활용 인프라 사업 참여

진출전략
FTA 범업· 홍보사업 추진
중미통합시장 관점 마케팅사업 추진
경쟁력 우위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협력 유망분야 투자진출 강화



2-1. 한-중미 FTA 불협/홍보 사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 10월 한-중미 FTA 발효를 기해 중미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 * 과테말라는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FTA 체결을 희망하는 분위기임
- 과테말라는 미국을 비롯한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인근국과 주로 교역을 하고 있으나,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품목과 대(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이 대부분 일치하는 관계로 과테말라가 FTA에 참여할 경우, 관세 혜택을 통한 교역 증대가 기대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5년 협상이 시작되어 2018년 서명한 한-중미 FTA가 2019년 10월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 발효됨
 - 중미기업들은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 원당 등 각종 농산물의 수출 시장이 열린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한편,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한국산 공산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품고 있음
- 이번 FTA에서는 중미는 품목 수 기준으로는 95%, 수입액 기준으로는 93~99%에 해당하는 개방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음료수,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들도 FTA 수혜 품목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
- 과테말라는 국내 산업계 의견 조율에 실패하여 한-중미 FTA 서명에서는 빠지게 되었으나 수입업 및 농·수산업 관련 수출업체에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과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특히 중미의 주요 수출품목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FTA에서 제외될 경우, 후발주자가 되는 만큼 시장점유율 확보에 불리할 수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미 기업들 사이에는 FTA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의 구체적인 정보 전파, 액션 플랜 수립 등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미 기업들이 FTA를 통해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전파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모두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의 FTA 수혜 품목(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미의 수출 증대를 위해 각종 주요 수출품인 각종 농산물, 의류 등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 포장재, 각종 기계류 핀포인트 대응 사업을 추진
 - 특히 중미 북부 3국은 임가공업이 발달해 있어 이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각종 첨단 기술 이전, 생산 기반 개선 사업 등을 함께 계획할 수 있을 것임
 - * 2020년 상반기 FTA 활용 무역사절단 파견, 중미기업 수입수요 상시대응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음

2-2. 중미 통합시장 관점의 마케팅사업 추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역사적으로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미 시장 통합 움직임 지속
 - 중미공동시장(CACM, 1960년), 중미공동관세체계(SAC, 1985년), 중미자유통행협정(CA-4, 2006년) 등
 - * (관련기구) 중미 의회(PARLACEN),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 중미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3국 간 중미 북부 관세동맹 공식 출범(2018년 8월)했으며, 중미 6개국 공통 세관 수출 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DUCA 구축하였음(2019년 5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역통합 기류에 따라 자본 및 사업 모델의 역내 다국적화가 관찰됨. 중미 지역의 전통 부호는 유통망의 다국적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 자본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음
 - * (유통) 엘살바도르 POMA 가문, 중미 전역 쇼핑몰·자동차딜러십 보유/(GVC) 중미국 간 원사·원단 → 봉제업 수직계열화 등
- 중미 6개국은 2019년 5월 공통 세관 수출 신고 온라인 플랫폼 DUCA를 구축해, 역내 교역 원활화 조치를 시행하였음
 -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수출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었고, 수출 신고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국경 세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또한 주요 교역 품목에 배송 시간에 민감한 신선 식품들도 포함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과테말라-온두라스는 관세동맹을 체결, 역외 생산 재화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엘살바도르 역시 관세동맹 가입에 합의하고,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미 전체적으로 관세동맹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음
 - 향후, 중미 내에서 역외 생산 재화도 자유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경우, 우리기업들은 이를 한-중미 FTA와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FTA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미 전반에 걸쳐 영업망을 확보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가 아닌 중미를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계획 수립
- SICA 산하 각종 통합 추진 기구를 활용하여 중미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 교통각료위원회(COMTRAN), 경제통합각료위원회(COMIECO), 보건각료위원회(COMISCA) 등을 구축하고, 교통인프라 공동 개발, 보건 분야 약품 공동 구매, 역내 무역 원활화 정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이들 위원회와의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

- * 특히 COMISCA에서는 중미 6개국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백신, 항생제 등과 같은 기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요를 종합하여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동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역외 기업도 벤더등록이 가능하며, 벤더 대상으로 연간 입찰을 실시해 공급자를 선정하고, 해당 공급자는 개별 국가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서도 한-중미 FTA 활용을 통한 교역 증대, 경제 통합에 관심이 높은 만큼 각종 마케팅 사업에 있어 CABEI와의 협력도 함께 검토 필요
- o 특히 2020년은 SICA 60주년으로 상반기 의장국인 온두라스와 하반기 의장국인 니카라과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중미 진출기회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2-3. 고품질의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o 식료품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품목으로 토종기업의 현지 생산, 주변국 수출 활발한 산업
 - *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아시아 식료품에 대한 관심이 다대
- o 중미 지역에서도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K-Beauty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o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들의 한국산 소비재 판매가 확산되는 추세
 - 교포기업인의 시장개척 노력, 대형유통망 벤더들의 품목 다변화 시도로 다양한 OKF 알로에 음료를 비롯, CJ의 비비고 제품, 농심의 라면 제품, 롯데의 과자 및 음료들을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됨
 - 2019년 5월 과테말라무역관이 SIECA 협력사업으로 개최한 ‘한-중미 화상상담회’에 참여한 바이어들은 한국산 식음료를 건강에 좋은 제품들도 인식하고 있어 떡, 김스낵 등 다소 한국적일 수 있는 품목들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
- o 과거 중남미 지역 여성 소비자들은 색조화장품이 구매 우선순위였다면, 최근에는 소비력이 과거 보다 늘어나고, 인터넷 보급률 증대로 인한 뷰티 콘텐츠 소비가 많아지면서 스킨케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과테말라에는 한국화장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했으며, 소비자들의 열띤 반응에 힘입어 오프라인 매장도 개설한 바 있음
 - 또한 중미 지역의 주요 화장품 유통망인 Beauty Depot에서는 과테말라 무역관 협업으로 ‘K-Beauty’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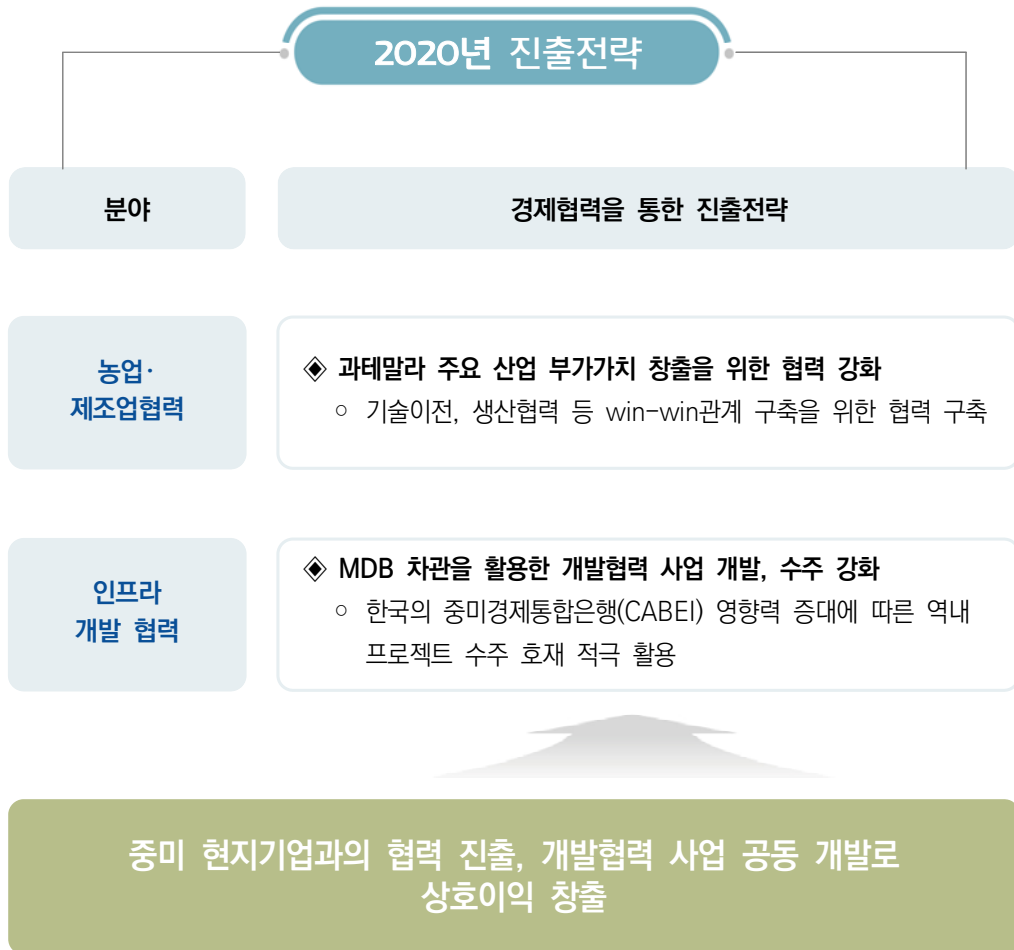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과테말라의 경우, 유통망이 직접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유통망에 제품 판매 이력이 있는 벤더를 통한 입점도 해당 시장 진출을 통한 좋은 전략임
 -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중미 북부 3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이 다수 있는 관계로 유력 벤더 혹은 유통망을 확보할 경우, 과테말라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중미에 속한 개별 국가들은 시장규모가 작은 관계로 다수의 바이어와 거래하게 된다면, 최소주문수량을 충족할 수 없거나 혹은 판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또한 바이어 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바이어와 거래 전 판매 가능 국가, 향후 구매 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임
- 화장품을 비롯 일부 식품들의 경우, 정식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 보건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기업이 제품에 대한 필요서류를 제공하면, 수입상이 보건등록 절차 및 비용을 담당하는 편임
 - 다만, 보건등록을 위한 위임장 작성 시, 보건등록에 대한 권한을 기간을 정해 작성하게 되며, 수입상들의 경우 등록 절차 자체를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을 5년~10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 과테말라무역관에서는 주요 유통망 및 벤더를 선정하여 한국 소비재의 중미 진출을 위한 팝업 스토어 개최, 입점 지원 서비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병행하고 있음

3

한-과테말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과테말라 주요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제2의 주력산업인 마길라(임가공업)는 미국 시장의 선호도 변화, 투자기업 혜택 축소, 지속된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 상실하고 있으며, 중미 북부 3국도 모두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업은 과테말라 GDP의 1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그중 식음료 제조업이 44%를 차지하고 있음. 농축수산업은 GDP의 10%를 차지하지만 커피, 바나나, 원당, 카르다몸 등은 과테말라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교역에 있어 중요한 품목임.
- 과테말라 정부는 Post 마길라(임가공)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제조업(식료품, 제약, 화공), 물류업(지역거점화), 서비스업(관광, BPO) 등을 육성하겠다는 장기계획 발표
- * 꾸준한 인건비 상승으로 과테말라 임가공업 가격 경쟁력 소실, 조속한 산업 전환 필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과테말라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되 봉제업 위주에서 탈피, 과테말라 정부의 육성 분야인 자동차 부품, 식품 가공, 포장 분야 등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노하우 전수, 기술이전, 생산협력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국내 기업의 기술, 고품질 원자재 등을 활용해 중미에서 생산 후 역내 판매 혹은 제3국 시장 수출과 같은 협력이 가능할 것임
- 과테말라의 농축수산업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커피는 대(對)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효자상품이기도 함. 다만, 과테말라 농업 현장에서 기술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국제 소비 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친환경적인 농사기술 및 기자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스마트팜 솔루션 등을 도입하여 비용 절감, 제품 품질 상승, 소득향상 등 여러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며,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이에 농업 관련 기자재 및 각종 기계류(선별기, 건조기 등) 스마트팜 솔루션 전파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 협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시에 국내기업 유희 장비 기증, 제품/솔루션 수출 후 해당 작물 수입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도 검토 가능할 것

3-2. MDB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개발, 수주 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미 국가들의 경우, 정부 재정 부족으로 주로 다자개발은행(MDB)를 활용하여 각종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중미에서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미주개발은행(IDB), 월드뱅크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CABEI가 이들 기관 집행액 중 47%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CABEI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어 IDB 프로젝트 외에도 CABEI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8월 한국 국회에서 CABEI 회원 가입이 비준되면서 CABEI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음. 우리나라는 자본금 4.5억 달러를 납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7.5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이에 따라 역외 회원국 중에서는 대만에 이어 2위 지분율을 갖게 됨
 - CABEI는 개별 국가 차원의 인프라 프로젝트뿐 아니라 중미 전체를 관통하는 전력망 구축과 같은 지역 개발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고 있음
 - CABEI는 4억 달러의 EDCF 협조융자, 3억 달러의 수출입은행 전대금융 크레딧 라인을 설정하고 있어 한-중미 인프라 협력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과테말라 신정부에서는 과테말라시티 도심 교통개선 프로젝트(경전철, 지하철, 북동부 고속도로 등), 교역증대를 위한 도로 개선 및 철도 구축, 지방 전력통신망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해당 프로젝트는 PPP로 진행되거나 MDB 차관으로 진행될 전망.

진출전략

- 무디스는 한국의 정회원 가입, 한-중미 FTA 비준 등의 호재로 2019년 9월 CABEI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CABEI에서는 한국의 가입 이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CABEI는 가입을 기념해 2019년 10월 한국에서 Korea Week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향후 한국과 정기적인 협조채널을 구축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고자 함
 - 중미 프로젝트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해외 진출,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사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CABEI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
-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부 3개국의 경우, 그 동안 인프라 투자가 미진하였고, 정부 의지가 있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음. 이에 한국의 기존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선정, 로드맵 수립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 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도모 필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기관 개요



- ▶ **(설립일)** 1960년 12월 13일 (**본부 소재지**) 테구시갈파(온두라스)
- ▶ **(신용등급)** A+(Fitch), Aa3(Moody's)
- ▶ **(자본금규모)** 수권자본금 50억 불
 - (유형) 51% A형-창립국가 출자, 49% B형-비창립 역내 및 역외 회원국
 - (MDB 비교) IDB 1,709억 불, ADB 1,647억 불, AfDB 1,069억 불, EBRD 432억 불 등
- ▶ **(주요 기능)** 지역개발, 통합 관련 정책금융 집행
 - **(중점분야)** 인프라, 에너지, 금융중개, 개발금융, 농촌사회·인적자원개발 등
- ▶ **(사업실적)**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총 355억 불 사업 지원(집행액 기준)
 - 2015년 18억 불 → 2016년 21억 불 규모 사업 승인
 - * 중미 지역 전체 자금 대출 비중 CABEI 47%, IDB 33%, World Bank 20% 순임

□ 회원국 현황 및 한국 가입 현황

▶ 회원국별 지분율

역내국	엘살바도르(10.20%), 니카라과(10.20%), 온두라스(10.20%), 코스타리카(10.20%), 과테말라(10.20%), 파나마(5.12%), 도미니카공(5.12%), 벨리즈(0.50%) 등 8개국
역외국	대만(10.00%), 멕시코(6.13%), 스페인(4.00%), 아르헨(2.9%), 콜롬비아(2.9%), 쿠바(1% 2017년 4월 가입) 등 6개국

▶ 한국 가입 현황

- (일지) 2018년 12월 가입 서명 후 2019년 8월 국회에서 가입 비준
- (출연금) B형 주식 4.5억 불로 25%를 4년간 균등 납부하고, 기타 자금은 요구불 형태* 역외국 중에서는 대만 다음으로 2위 지분을 보유하게 됨

4

진출 시 유의사항

회신에 대한 문화 차이	가격 민감 시장
■ (현황) - 상대의 이메일 혹은 전화에 대한 회신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받기 어려움 - 또한 NO라는 표현을 삼가기 때문에 바이어의 구매 의도를 잘 확인해야 함 ■ (대응전략) ☞ 일반적으로 이메일, 전화보다는 Whatsapp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에 더 빠른 반응을 보이므로 어느 정도 관계가 구축된 후에는 개인 핸드폰 번호를 교환해 메신저로 교신	■ (현황) -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좋은 품질과 디자인 그러나 저렴한 가격을 선호(Bueno, bonito y barato) 품질이 좋다 해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음 ■ (대응전략) ☞ 과테말라 시장의 인구가 1,600만 명에 불과한 관계로 한국이 요구하는 MOQ를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활용에 수량과 가격조율점을 찾아야 할 것임
정보부족	국내정치 리스크
■ (현황) - 선진국에 비해 각종 통계, 정보가 부족한 편임. 또한 영어구사인구가 적고 시차가 있어 전화 인터뷰를 통한 정보 획득에도 한계가 있음 * 국가주도 인구조사도 16년 만에 2018년 다시 진행한 바 있음 - 또한 현지 바이어들은 치안불안으로 인해 각종 재무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림 ■ (대응전략) ☞ 무역관을 통해 현지 시장 조사 실시	■ (현황) - 과테말라 대통령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정권 교체기 담당자 변경이 빈번함 - MDB 파이낸싱 및 PPP를 활용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 ■ (대응전략) ☞ 장기 추진 프로젝트는 과테말라 정치 이벤트 사이클에 맞춰 준비 필요 * 2020년 1월 신정부 취임 예정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2202	수입관세율(%)	15
음료	수입액('18/US\$백만)	82.91	대한수입액('18/US\$백만)	5.29(6.37%점유)
	('19.6월/US\$백만)	49.83	('19.6월/US\$백만)	3.69(7.41%점유)
	선정사유	한국산 제품 수요 급등 품목		
	시장동향	① 주류, 탄산음료, 넥타, 생수제품 현지 생산, 경쟁 치열 ② 탄산음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생기며, 스포츠드링크, 건강음료 위주로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① 멕시코, 중미국 모두 생산하며, 역내교역 활발 ② PEPSI, AMBEV 라이선스 보유 CBC社가 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		
	진출방안	① 알로에베라, 코코넛 등 현지 미생산 제품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 ② 에너지드링크, 캔커피 등 기존출 아이템 외 건강음료(차, 다이어트음료, 비타민 음료) 등 신제품 중심 마케팅 필요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2		8708	수입관세율(%)	10 (단, 8708.30.20는 0%)
자동차 부품	수입액('18/US\$백만)	144.67	대한수입액('18/US\$백만)	3.46(2.39%점유)
	('19.6월/US\$백만)	71.96	('19.6월/US\$백만)	1.56(2.17%점유)
	선정사유	① 한국산 차량(신차·중고차) 꾸준히 증가 ② 애프터마켓 제품 및 자동차 유지관리 부품 수요 동반 성장 중		
	시장동향	신차 시장 기준 기아차(2위), 현대차(3위) 등 높은 한국산 선호도 지속		
	경쟁동향	대부분의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대만산, 멕시코산이 시장 장악		
	진출방안	· 중미 지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 엘살바도르는 FTA 발효 이후 관세 0%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3		8507.10.00	수입관세율(%)	15
자동차배터리	수입액('18/US\$백만)	36.89	대한수입액('18/US\$백만)	5.61(15.19%점유)
	('19.6월/US\$백만)	19.34	('19.6월/US\$백만)	3.68(19.02%점유)
	선정사유	미국·멕시코산은 무관세품목임에도 한국산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시장 인식 지배적		
	시장동향	① 멕시코산에 이어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2위차지 ② 한국산은 리드타임이 중남미 제품에 비해 길지만 관세가 낮아질 경우, 한국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바이어들이 있음		
	경쟁동향	MAGNUM(현지), LTH, BOSCH, Interstate, AC Delco, Solite 등 유명브랜드 각축장		
	진출방안	① 한-중미FTA 발효국 우선 진출 - 엘살바도르 관세 즉시 철폐, 온두라스 10년 균등철폐 ② 중미 지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4		3004	수입관세율(%)	5
의약품	수입액('18/US\$백만) ('19.6월/US\$백만)	489.38 261.61	대한수입액('18/US\$백만) ('19.6월/US\$백만)	2.21(0.45%점유) 1.32(0.50%점유)
	선정사유	① 높은 빈곤층 비율로 인해 공공보건 분야의 의약품 재고가 항상 부족 ② 정부 조달 대기수요 다대(수입규모 4위 품목) ③ 중미 차원의 공동구매 조달 방안 마련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수량 가능		
	시장동향	공공부문 조달 시장 기준 10대 조달 업체의 낙찰규모는 2억 불 내외		
	경쟁동향	Bayer, Abbot 등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 71개 내외의 의약품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일부는 현지 생산공장 운영		
	진출방안	① 천연 약재, 소아용 의약품, 항암제, 항생제 등 고경쟁력 제품 위주 시장 진출 ② 공공 조달 시장의 경우 개방계약(Open Contract)이 일반적으로 현지 낙찰 경험 많은 유력 조달 업체와의 파트너십 중요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5		1902.30	수입관세율(%)	15
인스턴트면류	수입액('18/US\$백만) ('19.6월/US\$백만)	1.08 0.55	대한수입액('18/US\$백만) ('19.6월/US\$백만)	0.03(2.3%\$점유) 0.02(3.04%점유)
	선정사유	최근 3년간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 꾸준한 성장세 기록		
	시장동향	① 한국산 가공식품 수요층 확산 추세(월마트 등 대형유통망에 라면, 만두 등 한국산 가공식품 판매) ② 빠르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③ 닭고기, 소고기, 새우맛을 기본으로 간주		
	경쟁동향	① 중미, 멕시코 등 인근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절대적 비중 차지(마루찬, 니신 등) ② 현지 업체가 SAMYANG 브랜드(도용 추정)로 컵라면 생산, 유통 중이며, 자생 브랜드 다수 존재		
	진출방안	유통체인을 확보한 벤더 혹은 현지유통망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하되, 차별화 제품으로 틈새/프리미엄 시장 진출에 집중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6		3304	수입관세율(%)	15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19.6월/US\$백만)	66.2 32.3	대한수입액('18/US\$백만) ('19.6월/US\$백만)	0.09(0.14%점유) 0.1(0.34%점유)
	선정사유	최근 들어 K-Beauty에 대한 여성 소비자 관심 증대		
	시장동향	①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산을 찾는 소비자, 유통망 확산 ② Fetiche, Siman 등에서 고급 화장품을 판매하며, 기타 Walmart, Torre 등 슈퍼체인에서 중저가 화장품 취급하고 있으나, 색조 위주		
	경쟁동향	① 현지 생산업체(FLUSHING)가 있으며, 페루계 화장품 기업인 BELCORP 산하브랜드(ESICA, L'BEL, CYZONE 등) 강세 ② MUMUSO, MINISO 등 한류팬승브랜드 진출 중		
	진출방안	① 전문유통망 및 벤더를 활용하되, 진출 초기 인플루언서 마케팅 투자 필요 ② 현지보건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상이 해당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종 서류 작성에 협조 필요 ③ 과테말라무역관 팝업스토어, KSF사업 참여 등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교포기업인을 중심으로 한국계 프랜차이즈 도입 수요 존재 중미 내 최대 프랜차이즈 시장이며, 외국계 브랜드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 시장
	시장동향	본스치킨 기진출(교포사업가 운영)
	경쟁동향	미국브랜드(TACO BELL), 현지자생 브랜드(Pollo Campero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업 중
	진출방안	① 현지 인지도 높은 한식 브랜드 위주 아이템 선정 ② 현지 프랜차이즈 대기업보다는 교포기업인(5천 명)을 활용하여 진출 필요
품목명 2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① 과테말라 신청부를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 ② CABI 가입 이후, 우리기업의 CABI 프로젝트 진출기회 확대
	시장동향	인프라 개발 수요는 많지만 정부 재정 문제로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손쉽게 추진되고 있음 CABI, IDB 등 국제기구 차관, PPP 사업 등을 활용하여 전력통신망 구축, 항만개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자 함
	경쟁동향	과테말라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언어적인 문제로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 역내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진출방안	① 토목공사 등이 수반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각종 리스크 헷징 필요 ② 사전타당성 조사, 감리 혹은 기자재 조달 등 건설이 아닌 부가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소비자 진출지원 팝업 스토어 개최(2020 상반기, 과테말라)

- 중미 화장품 및 식품 분야 유통망 및 벤더 연계 팝업 스토어 개최
 - 중미 유력 유통망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PB 상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
 - 또한, 한국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바이어들과의 협업으로 수입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팝업 스토어를 개최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K-Goods에 대한 인식 제고

관할지 진출 지원사업(연중 상시)

- 한-중미 FTA가 발효되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바이어들의 수입 수요 대응을 위해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사업, 바이어 수요 맞춤형 국내기업 발굴, 무역관 대행상담 등의 사업을 연중 상시 지원 예정
 - 이를 위해 테구시갈과 상공회의소,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 등 개별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

FTA 붙업 활용 사업 추진(연중)

- SICA, CABEI 등 중미 경제통합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각종 사절단, 상담회 등 추진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당선자 취임	2020.1.14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중미 FTA 재협상	연중(미정)	한-중미FTA 공식 비준 후 진행 예정
2021 정부 예산안 발표	2020.8월	
2021 최저임금 발표	2020.12월	
SICA 60주년 기념행사	연중(미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pparel Sourcing Show 2020	2020.5.12 ~ 14	섬유 분야 대표 전시회
FERIA ALIMENTARIA 2020	2020.9월	
FERRET EXPO 2020	2020.11월	

부록

對과테말라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과테말라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과테말라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중미의 맹주, 과테말라

- 중미는 과테말라(북단)에서부터 파나마(남단)까지의 6개국을 지칭하며, 과테말라는 6개국 중 GDP, 인구, 교역규모 면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임
- － 역사적으로는 스페인 독립 이후, 멕시코에서 독립해 중미 연방의 수도로 기능한 이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국인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심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나 친근함을 느끼는 관계임

중미 국가 주요 경제지표

	인구(천명) ¹⁾	GDP(백만\$) ¹⁾	수입(백만\$) ²⁾	대한(對韓) 수입(백만\$) ²⁾
과테말라	17,247.8	78,460	19,699.3	291.2
온두라스	9,587.5	23,803	9,423.9	106.3
엘살바도르	6,420.7	26,057	11,725.8	223.0
니카라과	6,465.5	13,118	7,351.1	135.0
코스타리카	4,999.4	60,126	16,158.9	245.6
파나마	4,176.9	65,055	9,219.9	365.4

주1 : 월드뱅크, 주2 : Global Trade Atlas

- 중미는 개별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높은 상호유사성을 지녀 경제·정치적 통합 논의가 반복되어왔음. 50년대부터 중미기구(ODECA, 1951년), 중미공동시장(MCCA, 1960년)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미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1993년에는 현재의 중미 통합체제(SICA)를 창설함
- － SICA체제 하에서 중미 국가들은 대외공동관세를 도입하고, 역내 생산재화에 대해서는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등 경제통합체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
- － 2019년 5월부터는 단일통관시스템(DUCA)를 사용하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관세동맹을 채택하는 등 장기적으로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자함

과테말라의 잠재력

- 과테말라의 GDP는 최근 20년간 연평균 8%로 성장해 왔으며, 1인당 명목 GDP는 2001년 1,568달러에서 2019년 4,606달러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
 - 특히 1996년 36년간의 내전에 중지부를 찍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성장 중
- 또한 과테말라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외채 관리, 해외가족 송금 등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외화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으며(142억 달러), 안정적인 환율을 보유하고 있음(달러 당 7.6~7.8케찰)
- 과테말라의 인구는 1,725만 명이며, 인구의 50% 이상이 19세 이하이며, 중위연령은 22.5세로 중남미에서도 가장 젊은 국가에 해당되며, 인구 1,000명 당 출생률은 24.6명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 방면에 모두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접근이 용이함

주요국의 대(對)과테말라 경제협력 현황

- 과테말라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으로 수출의 33%, 수입의 3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내 인근국(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과도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으로부터의 수출도 최근 크게 높아져 2017년부터는 제2위 수입상대국으로 발돋움함
- 중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18년 파나마,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함. 현재 대만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15개국 중에서는 과테말라가 가장 경제 및 인구 측면에서 가장 규모 있는 나라임. 중국과는 국교가 없지만 중국과의 교역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과테말라는 도미니카공화국-미국-중미 5개국(파나마 제외) 간 DR-CAFTA, 멕시코-중미 5개국 FTA, EU-중미 6개국 FTA, 파나마-중미 5개국 FTA, 대만과의 양자 FTA 등 다수의 양자/다자 FTA를 체결하고 있음
 - 다만, 한국-중미FTA에서는 과테말라가 빠져 있으며, 향후 중미 5개국에서 모두 FTA 발효된 이후 과테말라의 추가 가입 협상이 가능해질 전망

나. 한-과테말라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한-과테말라 협력 분야 다변화 필요

- 과테말라는 브라질(4.8만), 아르헨티나(2.3만), 멕시코(1.2만), 파라과이(5천)와 함께 중남미 5대 교포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5,500명), 현지 진출한 봉제 업체 관계자들이 주류를 구성

-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 전자가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임가공업과 관련된 봉제 및 수직 계열화된 중·소규모 협력기업들이 대부분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직·편직·직조, 무역 등 총 120여 개의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임
-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1989년 37건, 2000년 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복, 섬유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법인 수 84%, 투자금액 82%)
- 지금까지의 투자는 주로 봉제 분야에 집중된바, 향후 양국 관계 고도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또한 과테말라 신정부 이후 FTA 추가가입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방위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과테말라의 협력수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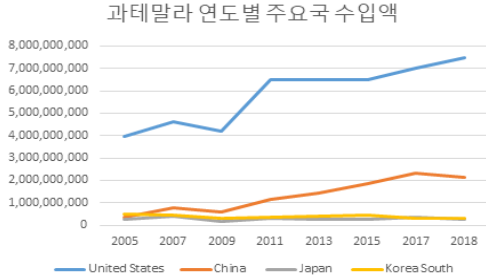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 부품	식품 및 가공	◆ 교역 및 투자 분야 다변화 - POST 마길라(봉제) 협력 분야 개발
농업	보건의료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송배전, 교통 등 분야, PPP
소비재	에너지 인프라	◆ 장기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 기술, 인력 개발 및 산업 발전

우리기업들의 과테말라 협력수요

- 우리 무역관에서 과테말라와 교역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업, 물류서비스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재화 부분에서는 가공식품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임가공업(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에 높은 관심을 보임
- 또한 응답자 중의 52%가 교역확대 및 무역협정 체결을 협력 우선순위로 꼽았고, 개발협력(11%), 인프라 등 SOC 사업(11%), 문화협력(7%)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응답자들은 과테말라와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직간접 수입규제(27.5%), 운송 및 유통 인프라 부족(20%), 까다로운 인증제도(17.5%), 계약 절차의 불명확성(1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한국-과테말라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과테말라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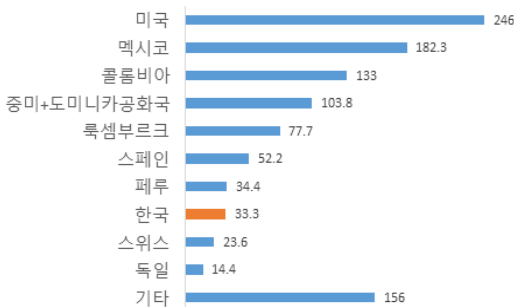
- 2018년 과테말라의 주요국 수입액은 미국으로부터 약 75억 불, 중국 22억 불, 일본 2.6억 불, 한국 2.9억 불 규모
- 최근 10년간 대(對)미국 수입은 연평균 6%, 대(對)중국 수입은 14%로 지속성장하고 있음. 다만, 한국은 과테말라 봉제업계의 부진으로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 추세

2. 대(對)과테말라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편직물	철강류	플라스틱
중국	전자기기 및 부품	철강류	기계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
일본	자동차 및 부품	철강류	기계 및 부품	고무류	광학기기

- (수출경합도) 대(對)과테말라 수출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4개 품목, 한국과 일본도 3개 품목이 겹침

3. 대(對)과테말라 투자진출 현황(2018년 기준)



- 한국의 대(對)과테말라 직접투자(약 3,300만) 제조업 분야에 집중(한국자본기업 : 150여 개)
 - 중국 및 일본의 투자진출은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며, 한국이 3국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투자 비중은 도소매업(31.5%), 제조업(16.9%), 금융보험업(16.3%)순이며, 통신업, 전력에너지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음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양국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① 한-중미 FTA 과테말라 추가가입을 통한 통상 기반 마련

- (현황) 한-중미 FTA는 2019년 10월부터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 발효되었으며, 엘살바도르 및 코스타리카는 해당국가 국내절차 완료 통보 이후 발효 예정임. 과테말라는 파나마 국회 비준 이후, 5개국에서 FTA가 발효된 이후, 추가가입 협상이 가능함
- (협력 분야) 양국기업대상 우선 협력 분야 설문조사 결과, 교역확대 및 무역협정 체결이 최우선적으로 높은 순위로 꼽힘
 - 또한 FTA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및 철폐(응답자의 38%), 통관절차 간소화(33%), 정부조달 시장 참여(14%), 위생검역 절차 간소화(8%) 등의 효과를 누릴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
- (향후 전망) 과테말라는 국내 산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과테말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FTA 체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 이후 논의 가능성 상존
 - 이에 문제가 되었던 산업군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미리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추가 가입 협상이 가능할 것임
 - * 과테말라 한국이 요청한 15개 항목에 반대하고 있는데 비알콜성 음료, 시멘트, 플라스틱, 종이 및 판지, 신발 그리고 철강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소고기, 새우, 설탕, 주류, 꿀, 채소 및 바나나 등에 대한 한국의 개방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협력 전략) 과테말라의 추가 가입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타 중미 국가에서 각종 FTA 붙임 사업을 개최하며, 과테말라가 FTA 체결 이후 기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각종 협회 등과 함께 기업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여 FTA가 발효될 경우, 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필요

② 보건의료 분야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 (현황)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교역 확대, 인적 교류, 기술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수요가 상존함
 - 다만 과테말라에서는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의 경우 보건부에서 관장하는 보건등록을 취득하여야 함. 해당 절차는 통상 6주~8주 가량 소요되며,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로 우리기업들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

(예시) 화장품 보건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 제품등록을 위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영어/스페인어, 아포스티유)
- ▶ 자유판매증명서(아포스티유)
- ▶ 임상안전성 평가 증명서
- ▶ 실험실 분석 인증서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 제품 세부사양
- ▶ 라벨 디자인 및 내용
- ▶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제품 샘플 및 활성성분에 대한 기준표

- **(협력 전략)** 한국 식약처에서 취득한 인증을 과테말라에서도 상호 인정하거나 혹은 이를 바탕으로 보건등록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테말라 보건부(의약품 및 관련 제품 규제관리국) 간 인증 분야 기술협력, 상호 인증, 인허가 취득지원 기반조성 가능성을 검토
 - 또한 한국의 각종 인증 관련 운영사례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경험·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기존 협력사례)** 한국은 멕시코 규제당국인 코페프리스(COFEPRIS) 레벨에서의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에과도르 보건부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동 승인을 인정하는 보건부령을 공포한 바 있어 과테말라와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음

3 대외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 **(정책 수요)** 과테말라 신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 수출 진흥, 자유무역지대 촉진 등 과테말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도 정책 수요가 높은 편임
- **(협력 현황)** 과테말라는 지금까지 4건의 KSP를 비롯하여 KOICA를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8년 첫 유상원조 사례로 중미개발통합은행(CABEI)의 과테말라 병원 신축 및 증축 프로젝트에 7,900만 달러의 EDCF 협조융자를 제공
 - * 병원 프로젝트는 현재 과테말라 국회에서 승인 대기 중이며, 2019년 내 승인 전망

과테말라 주요 협력사업

연도	구분	사업명	협력부처(국내기관)
2017년	KSP	과테말라의 공공정책과 기획/예산 주기 간 연계성 강화	국가기획청, (KDI)
2016년	KSP	과테말라 발전을 위한 중점 분야 정책 자문 : 공공부문 투명성,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중소기업에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공무원교육원, 국가과학기술혁신청, 경제부, (KDI)
2015년	KSP	과테말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핵심 분야 정책 자문	경제부, 산카를로스 대학교, 국가과학기술청, (KDI)
2014년	KSP	- 영세중소기업의 숙련형성, 숙련의 평가와 인증 모델 - 과테말라의 농업 및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혁신청, (KDI)
2014~2019년	양자무상	과테말라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교육시스템 개선사업 및 경찰교육 역량 강화	경찰청
2018~2021년	양자무상	과테말라 FAO 기후변화 대응 종합적 혼농임업 역량강화사업	농림축산부, 산림청
2018년	EDCF	병원인프라구축 및 장비 지원 사업	CABEI

자료 : www.ksp.go.kr, odakorea.go.kr

- **(협력 전략)** 과테말라 중점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아젠다별 KSP, ODA 및 개별 부처가 추진 중인 각종 해외 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 제공

협력 가능 분야 및 지원 방안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 진흥

- (협력내용) 한국의 경험공유, 정책 및 과테말라 맞춤형 정책 컨설팅(법제, 기관 업무 분장, 조직구성, KPI 설정, 사업 개발 등) 및 기관 설립 지원, 기업가정신 육성 및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정책 벤치마킹
- (지원방안) KSP를 통한 F/S지원 및 기관설립을 위한 ODA 연계(KOICA), 혹은 다자개발은행(MBD)과의 협력을 통한 차관 프로그램 설계 등
- * KOICA 미얀마 무역진흥기구 설립지원 사례有

▶ 자유무역지대 촉진

- (협력내용) 자유무역지대 운영방안 및 법제,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설계, 자유무역지대 안 산업단지 운영, 철도/항만과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경험공유 및 정책 컨설팅
- (지원방안) KSP를 통한 F/S지원, 자유무역지대 내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우리기업 파이낸싱(EDCF, 전대금융) 등
- * 정책전파뿐 아니라 과테말라를 기반으로 중미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제공 가능

▶ 전자 정부 구축

- (협력내용) 전자 정부 솔루션 및 기대효과 소개, 과테말라 현황 진단 및 도입 가능/필요 솔루션 구축에 대한 로드맵 작성,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지원(브로드밴드) 등
- * K-Package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각종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소개
- (지원방안) 개별 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 협력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KSP를 통해 과테말라에 맞는 솔루션 선정 및 로드맵 작성

나. [B2B]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추진

① 농업분야 기술협력

- (시장 수요) 과테말라의 농수산업은 전체 GDP의 10%,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 특히 바나나는 과테말라 전체 수출의 20%, 원당은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는 대(對)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효자상품임
 - 다만, 대부분의 농업 현장에서 기술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 상태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국제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소비 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친환경적인 농사기술 및 기자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수의 작물이 다국적 브랜드에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거나 농가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마을 혹은 조합 단위로 장비 도입, 자체 브랜드 개발, 특색 있는 패키징 도입 등을 통해 생산 제품 부가가치 부여를 통해 수익 개선이 필요
- (한국 역량) 한국은 최근 과수원, 온실, 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비용절감, 출하량 증대 등으로 농가 수익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음
 - 또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화학비료의 부작용이 점차 심해지자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개발하여 작물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IT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병충해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협력 전략) 과테말라 수출자협회 및 커피수출자협회 등과 협력으로 과테말라 대규모 농장의 니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업체 혹은 협력 가능 기관을 선정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국내 스마트팜 솔루션 및 친환경농자재, 농업기계류 카탈로그 제작 배포 및 과테말라 쇼케이스 개최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 홍보
 - 국내 농기계류 수출 기업과 농식품 수입 기업 Team up을 통해 과테말라 농업계와의 구상무역 모델 구축 : 한국 농기계 수출 - 과테말라 생산 - 한국 대(對)과테말라 작물 수입
 - 국내기업 유후 장비 기증, 과테말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한 CSR 활동 병행

② K-Goods 중미 진출을 위한 B2B 협력

- (시장 수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는 소비력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인터넷 보급률 증대로 인한 뷰티 콘텐츠 소비가 많아지면서 스킨케어에 대해 큰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함
 - 한국 화장품 붐이 일어나며, 한국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매장이 생겨났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하게 됨
- * KALON은 2018년 처음 온라인 매장을 개장했으며,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Spa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주요 유통망을 중심으로 자사 브랜드 화장품 제조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브랜드 제품 판매와 동시에 OEM 수요 대응 필요성이 대두
- KOTRA 과테말라무역관은 2018년, 2019년 중미 주요 유통망 및 벤더와 협력하여 20여 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중미 진출을 지원한 바 있음
 - * 2018년 화장품 전문 유통망 Beauty Depot 진출, 2019년 고급백화점 SIMAN 및 Walmart 진출
- **(한국 역량)** 과테말라는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한류열풍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으나 이제는 K-Pop 동호회, 팬클럽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한국 화장품을 찾아 쓰는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음. 또한 5,000여 명에 달하는 교민들을 통해 한식이 널리 알려지며, 한인 마트가 아닌 일반 과테말라 슈퍼마켓에서도 한국 제품(신라면, 알로에 음료, 비타민 음료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됨
 - * 미샤, 이츠스킨, 스킨푸드, 닥터자르트 등은 현지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알려져 있음
- **(협력 전략 1)** 식품, 화장품의 경우 현지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아닌 업계 차원에서 이를 위한 현지 인증 컨설턴트를 고용, 한국기업들의 문의 사항에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본적으로 바이어들이 인증 비용을 담당하고, 에이전트를 고용하나 한국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필요
- **(협력 전략 2)** 화장품, 알로에 음료 등에 집중되어 있던 수요가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 수출기업과 현지 수입상이 합동으로 팝업 스토어를 개최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병행해 중미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소비자 교육 기회로도 활용

③ 자동차 부품·중고차

- **(시장 수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중미 북부 3국은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로 자동차 취득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및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 미국, 일본, 한국이 자동차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차보다는 중고차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국산 'OES 부품, 애프터마켓 부품'에 대한 수요 발생
 - * 2018년 HS Code 8703(신차/중고차) 기준, 차량 수입 대수는 미국 15만 대, 한국 8,200대, 일본 5,400대 등 미국, 한국, 일본 시장점유율이 압도적
 - * 신차 판매기준으로는 도요타 시장점유율이 37%로 압도적이며, 마즈다(9.93%), 혼다(7.48%), 닛산(6.99%), 미츠비시(5.41%), 그리고 현대(3.9%) 순
- **(시장 기회)**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엘살바도르에서 자동차 부품, 배터리, 타이어 등은 관세가 0%로 즉시 철폐되며, 온두라스에서도 자동차 부품, 타이어는 즉시 철폐, 배터리 10년 균등 철폐 계획으로 향후 수출 확대 기회가 증대
- **(한국 역량)** 국내 제조사의 필터류, 서스펜션·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 OES 형태 수출 확대, 양질의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사 증가
 - '국산/외제차 포괄 다수 부품'을 조달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상사가 존재하며, 중남미 다수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 중미는 시장규모로 인해 소량 다품종을 요구하는 바이어가 많은 편

- **(협력 전략)** 인근지 무역관과 협력하여 멕시코 및 중미 수요를 취합, 파나마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적기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체인을 구축하고,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A/S 인력을 육성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고차(버스 등) 수출 시 ‘부품조달 애로, 현지 A/S 불가’ 등 바이어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관계로 지역적으로 근접한 중미 통합 A/S 센터 혹은 인력파견 서비스 제공

다. [B2G] 에너지-인프라 개발협력 강화

사회 전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개발

- **(현황)** 과테말라의 정부 인프라 투자는 중남미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프라 부족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낮은 인프라 투자는 정부의 재정 부족 및 발주기관의 프로젝트 오너십, 추진 의지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협력수요)** 2020년 1월 신정부 취임 이후, 기존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기업과의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과테말라 경전철 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심 교통개선 프로젝트는 대통령 당선자인 지아마테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수출입진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운영, 수송철도건설, 빈부 격차가 심한 격오지 전력 통신망 구축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한국의 경험공유를 통해 한국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사전진단,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프로젝트 연결 고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

컨소시엄 및 다양한 자금지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협력

- **(정부 기관과의 협력)** 주재국 공관, KOTRA 등과 협력을 통해 현지 조사단 파견하여 주요 인사 네트워크 구축,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가능. 또한 중남미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한 협력 형태 검토 가능

* 멕시코 Norte II 가스복합화력 발전소(한전-삼성물산-수출입은행)

* 멕시코 만사니요 LNG터미널 사업(가스공사-삼성-수출입은행)

- **(다양한 파이낸싱 프로그램 활용)** 우리나라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 및 각종 사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미주개발은행(IDB), 중미통합개발은행(CABEI) 등에 협조융자퍼실리티 및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라. [국민] 문화 및 상생교류 확대

① 민간 문화 교류 확대

親한 커뮤니티를 통한 교류 확대

- 산카를로스 대학교(USAC)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를 전파하는 한편, 한류 팬클럽 회원들을 통해 가족,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는 민간외교 사절로 활용
 - 특히 한국어 수강 과테말라인들은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말하기 대회, 글쓰기 대회, 퀴즈 대회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음
- 한국 소비재 Showcase 혹은 각종 마케팅 행사 진행 시, 세종학당 수강생, 팬클럽 등을 초청하여 ‘사전공개행사’ 등을 진행해 한국 관련 콘텐츠 생산 및 확대 유도

정부 주도 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 교류 촉진

- 과테말라 대사관에서는 공연단 초청, 한국 드라마 TV 방영,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테말라 사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한인회와 공동으로 한국영화 상영회, K-Pop 페스티벌, 중남미-대한민국 예술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 * 2019년 7월 퓨전국악 그룹 ‘퀸’을 초청하여 국립극장에서 과테말라 마림바 공연단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공연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현지 방송사(Guatevision)을 통해 해당 공연을 방영해 많은 과테말라 인들에게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계기가 됨

② CSR

과테말라 진출기업들의 현지 CSR 활동

- 과테말라 현지에 진출한 한인기업들은 다양한 CSR 활동을 경주하며, 현지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대사관에서는 2019년 8월 현지 CSR추진기관인 CENTRARSE와 협업하여 ‘한-과 CSR 포럼’을 개최
 - 해당 포럼을 계기로 월마트, Pantaleon과 같은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4개사는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CSR활동을 발표, 우리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과테말라 진출기업 CSR 활동 사항

기업명	업종	CSR 활동 내역
영신물산	제조(섬유)	▶ 지역 사회 도로 보수 ▶ 학교 컴퓨터실 건립 및 기자재 지원 ▶ 연간 학용품 지원 사업 ▶ 지역 주민 식수 및 예방접종 지원 ▶ 향후 학교 건립 목표
Startex	제조(섬유)	▶ 후예고 화산 폭발 이재민 지원 ▶ 알콜 중독, 마약중독자 재활 사업, ▶ 시청과 협력하여 섬유기술교육센터 설립 예정
케임브리지 재단	제조(섬유)	▶ 장학 사업 ▶ 컴퓨터 교실 기증 사업 ▶ 학용품, 간식, 교복, 통학 버스 지원
삼성전자 과테말라지점	전자	▶ 직원훈련원 TechInstitute 지원 ▶ 로봇 교실 방과 후 활동 ▶ 재해 이재민 대피소 지원 ▶ 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 향후 우리 진출 기업의 CSR 활동뿐 아니라 과테말라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다양한 기업의 CSR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기업 인식 제고 필요
-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과테말라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인력 양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 전략적 경영활동으로 진화(예 : CSV) 될 수 있는 프로세스 지원

Ⅲ. 향후 對과테말라 K패키지 실행체계(안)

KOTRA-공관-과테말라 신정부 협업체계 구축

-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공관과 KOTRA가 과테말라 신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안에 맞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양국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KOTRA	· 과테말라 최신 정책 동향 대(對)국내업체 전파 · 유망산업별 중남미 진출희망 우리기업 수요 파악 · 과테말라 수요 대응을 위한 적격 국내업체 발굴지원 · 각종 마케팅 사업을 추진을 통한 양국기업 협력수요 상시 파악
공관	· 양국 G2G 협력수요 파악 및 공유 · 현지 정책 동향 및 정부 구매계획 파악 · 과테말라 주요 정부인사와의 네트워킹 · 한국 내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연계
과테말라 정부 및 유관기관	· 국가 주요 프로젝트 및 입찰 정보, 법제 변경 동향 수시 공유 · 과테말라 정부 및 민간 협력수요 공유 · 현지 네트워크 공유 · 우리기업의 진출 및 교역 애로사항 해소 전담부서 운영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안성희	관장	과테말라무역관	+502-2298-0000	sh_ahn@kotra.or.kr

KOTRA자료 20-095

2020 국별 진출전략 과테말라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41-5(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